

研究論文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형근(제1저자)* · 김현선(제2저자)**

- I. 머리말
- II. <차사본풀이>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이본 비교
- III. <짐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통한 <차사본풀이>의 성격
- IV.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I. 머리말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망자천도굿은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공통된 무속 의례이다. 서울·황해도의 진오기(𪛗)굿, 경기도 새남굿, 동해안 오귀굿, 남해안 오귀새남굿, 제주도 시왕맞이, 함경도 망목굿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망자천도굿의 핵심은 죽은 망자에 있다. 죽은 영혼을 불러 굿을 받고 좋은 곳으로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속의 신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일반 채수굿처럼 무속에서 신봉되는 여러 신들이 두루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은 자를 제의의 중심에 두고,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신격들이 등장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이 망자천도굿에서는 저승사자와 관련된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서울굿의 <사재삼성>, 동해안의 <시무염불>, 제주도의 <차사본풀이>, 함경도 <짐가제굿>, 황해도의 <사자얼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구비문학 전공(2499125@daum.net).
 ** 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교수, 구비문학 전공(y3k@kyonggi.ac.kr).

름> 등이 그런 곳이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곳에서 저승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행된다. 하나는 풀이이고, 또 하나는 놀이이다 시무염불 차사본풀이 짐가제국은 풀이이고, 사제사성, 사자얼름은 놀이적 성격이 강하다.¹⁾ 이중 <차사본풀이> 와 <짐가제국>은 풀이로 진행되면서도 그 내용이 흡사하여 주목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제주와 함경도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전 신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저승사자는 저승 시왕의 명을 받들어 죽은 이의 영혼을 데려가는 존재이다. 제주도에서는 사자가 있고 차사가 있어 이를 분별한다. 그 분별의 단적인 예가 이들 존재에게 바치는 제상(祭床)이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왕 이하 제신을 위하여 사자상을 마련하고, 차사를 위하여 차사상을 마련한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차사와 사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저승사자라는 명칭만 존재한다. 그래서 제주 이외 지역에서 지칭하는 저승사자는 제주도의 저승차사와 같은 의미이다. 시왕맞이는 망자를 위해 시왕을 대접하는 의미의 의례이지만, 의례에서 중심을 두고 행해지는 것은 차사에 대한 것이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차사본풀이> 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승차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그 의미는 다른 지역의 저승사자와 통한다.

<차사본풀이>는 제주도 곳 중 죽음의례인 시왕맞이, 귀양풀이 등에서 연행된다. 물론 큰곳에는 모든 제주도의 곳이 망라되므로 큰곳 중 시왕맞이 제차 중에서도 <차사본풀이>가 구연된다. <차사본풀이>는 실상 두 가지 층위가 존재한다. 하나는 일반 육지의 곳과 같이 하나의 곳거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강림이의 신격좌정담이라 할 수 있는 서사무가만을 말하기도 한다. <차사본풀이> 라고 명명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서사 부분만을 부각시켜 다루지만 실제 연행 현장에서는

- 1) 사제삼성은 흔히 뜬대왕 사제삼성으로 다양한 신격이 모셔진다. 시왕, 중디, 사제, 삼성이 차례로 모셔지는데 가장 큰 비중은 사제이다. 시왕과 중디는 노랫가락과 공수로 연행되며, 사제는 만수반이와 사자놀음, 삼성은 공수로 연행된다. 사제의 만수반이는 풀이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된 것은 역시 만수반이 이후의 사자놀음이다.
- 2)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 집 (2005), 119쪽에서도 시왕맞이에서 <차사본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제주도 시왕맞이에서 차사 또는 체스가 대단히 긴요한 구실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왕맞이에서는 <체스본풀이>, <지장본풀이>, <스만이본풀이> 등이 차례로 구연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곧 <체스본풀이>이다”

교술과 서사가 혼합되어 있다.

<차사본풀이>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다양하게 상장례의 근원을 언급하고 있다. 명정, 기일제사법, 초혼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 죽음의 기원과 관련하여 인간의 죽음이 왜 질서가 없게 되었는지의 해명을 하기도 한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저승의 길들을 강림이를 통해 그려내주고 있다. <차사본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으나, 재고가 필요한 주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제주도 <차사본풀이>와 함흥 <짐가제굿>의 비교에 관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 두 무기는 같은 유형의 무기라고 지적되어 왔다.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에서만 왜 이 무기가 등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명만 미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무기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입장이다. <차사본풀이>를 기준으로 보면 <짐가제굿>과 공통분모인 부분이 있지만, 좀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들이 첨가되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과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위해 본고가 마련되었다.

한국의 곳에서 죽음과 관련한 신격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사본풀이>는 주목될 수 있다. 그러나 신화 연구에 있어 구전신화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왔고, 무속 연구에서는 무기에 대한 분석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차사본풀이>의 연구 또한 그 자료 가치에 비해 주목되지 못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차사본풀이>의 선행 연구로 다음의 사례들이 있다³⁾

- (1)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68).
- (2) 김화경, 「차사본풀이 구조의 분석」, 『인문연구』, 14호(1993), 75~94쪽
- (3)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권(1997), 223~246쪽
- (4) 장희철, 「차사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 (5)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

3) 본래 원고와 달리 분량 제한으로 심사에는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1), (5)에 대한 분석만 실어놓았다. 하지만 심사자의 의견 반영으로 선행 연구 모두에 대한 분석을 살렸다. 그럼에도 제한된 분량이 있으므로 요약과 비판만으로 간추렸다.

국무속학』, 제10집(2005), 95~130쪽

- (6)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집(2006), 43~71쪽

<차사본풀이> 서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1)의 연구는 본고의 고민과도 결부되어 있다. 다만 <차사본풀이>를 단일한 서사체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여러 서사체의 결합이나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1)에서는 단일한 서사체로 보고 전체적인 서사구조가 일치하는 예만 살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차사본풀이>의 이본별 비교와 구조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차사본풀이>는 몇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럴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설화 내지 소설들을 같이 살펴야 온전히 <차사본풀이>의 서사적 면모가 밝혀지리라 예상된다.

(2)은 안사인 구연본을 요약한 자료⁴⁾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레비스트로우스의 구조주의 연구방법, 즉 병렬적 구조주의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는 설정, 이승왕과 저승왕의 갈등, 이승의 차사가 저승의 차사가 된다는 핵심은 무시된 분석이다. 결정적으로 이 차사본풀이가 왜 연행되는가 하는 의례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이해하기에 차사본풀이는 강림이의 저승차사 좌정이 핵심이다. 즉, 시왕맛이에 있어 주 신격에 대해 청배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의례를 통해 그 차사에게 인정사정을 써서 망자가 저승 가는데 있어 잘 인도해줄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나까시리도전침, 시왕질침의 의례적 근거를 차사본풀이가 담고 있다.

(3)의 연구에서는 전국 무가에 고루 등장하는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를 분석한 내용이다. 차사본풀이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계여행형과 치성차사형이 그것이다. 이계여행형에는 천지왕본풀이, 바리공주, 차사본풀이가 해당되고, 차사대접형은 장자풀이, 황천혼시, 맹감본풀이, 짐가제굿이 속한다고 했다. 이들 무가는 무불습합 정도에 따라 시기적 전후 관계를 맺는다고 했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는 제목부터 파생된다. 차사본풀이 유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차

4) 현용준, 『제주도 신화』(서문당, 1976).

사본풀이가 대표 명칭이 되었다면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저승차사의 본풀이가 그 유형에 속할 것이고, 좀더 넓게 잡아보자면 본풀이는 없더라도 저승차사가 등장하는 무가일 수 있다. 그런데 분석 대상을 보면 <천지왕본풀이>, <바리공주>는 언뜻 납득이 안간다. <천지왕본풀이>를 넣으면 저승과 이승이라는 공간 대결 구조가 신계와 인계로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아주 많은 신화들 이른바 인세(人世) 차지경쟁 신화소를 가진 창세신화들이 이 유형에 속할 수 있게 된다. <바리공주>와 저승사자는 다른 존재이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이계 여행을 통해 죽음을 삶으로 전환했다는 설정은 <차사본풀이>와 충분히 비교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같은 유형의 이야기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해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본 연구자가 정의내리기에 차사본풀이 유형은 좁게는 저승차사의 본풀이, 넓게는 저승차사가 등장하는 무가로 보아야 한다.

(4)의 연구는 <차사본풀이> 각 이본간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서사단락을 추출하고, 그것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상례와의 비교를 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차사본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일한 학위논문이라는 점이다. 그외 전체적으로 토론할만한 논문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5)의 연구는 <차사본풀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시왕맛이에 서는 <차사본풀이> 외에 두 가지 본풀이가 더 구연된다. <맹감본풀이>, <지장본풀이>가 그것이다. 이 중 <지장본풀이>를 연구한 논문이다. 그러나 <지장본풀이> 또한 시왕맛이라는 의례에서 구연되므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전체 시왕맛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고에서 <차사본풀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인 곳으로서의 무가 읽기를 하고 있다. 즉, 무가를 연행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차사본풀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사항은 서울에서는 바리공주와 사재가 이원화되어 있고, 제주에서는 차사로 일원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것이 왜 그러한지, 또는 그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6)의 연구에서는 <차사본풀이> 중 인간 죽음 기원을 말해주는 부분의 신화적 의미를 밝혔다. 인간 죽음 기원 대목은 <차사본풀이> 중 후반부에 나타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차사본풀이>의 연구 시각을 세계로 확장하여 비교 신화의 관점을 갖추었다는 점과 이 무가가 후대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간 죽

음 기원 대목은 <차사본풀이>가 단일한 서사체가 아니라는 본고의 논거를 뒷받침 해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굿>이 같은 유형이라는 논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더 <차사본풀이>의 문면을 천착해보면 같지만 다른 면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차이가 비단 명칭과 장소라는 지엽적인 것만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론에서는 먼저 <차사본풀이>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이본 비교를 통해 공통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과 <짐가제굿>을 비교한다. 비교를 통해 두 무가의 같으면서 다른 양상과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⁵⁾

II. <차사본풀이>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이본 비교

제주 <차사본풀이>는 비교적 여러 자료가 남아있다. 자료의 구전 시기와 주체가 다양하다. 게다가 제주시, 제주 동쪽, 서쪽, 남쪽의 다양한 지역에서 채록된 만큼 그 자체만으로 내적 비교 연구가 가능할 정도이다. 현재 <차사본풀이>는 9편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⁶⁾

- 5) 심사과정에서 한 심사자는 결론적으로 두 무가의 양상이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이 미진하므로 “비교를 통해 두 무가의 같으면서 다른 양상과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부분을 생략해야 한다고 했다. 창세신화적인 면모, 신의 근원을 푸는 본풀이적 성격 의례와의 상관성이라는 제주도 지역의 무속 환경이 <차사본풀이>를 <짐가제굿>과 차별화했다는 이 논문의 내용을 평면적 기술이라고 치부했다. 평면적 기술이지만 이전의 논의에서는 하지 않았던 얘기이므로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제주도 굿의 특징이 이 무가에도 반영되었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굿의 환경, 무풍을 고려하지 않은 텍스트만의 심층 분석을 통한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고의 임무가 아닌 그 부분에 천착한 다른 연구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 6) 선행연구 중 장희철, 「차사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2004)에서 이본 비교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빠진 이본도 있고 분석에 있어서도 충실히 이행되어졌다고 보기 힘들어 다시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하도록 한다.

연번	구연자	자료명	지역	계재지	채록자	채록연대 (출판연대)
1	박봉춘	체사본풀이 (差使本解)	서귀포	조선 무속의 연구	赤松智城 秋葉隆	1937
2	고대중	<차사본풀이>	구좌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재수록	장주근	1962.8.
3	이영주	차사본	한경	남국의 무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재수록	진성기	1956~63
4	김해춘	차사본	서귀포	남국의 무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재수록	진성기	1956~63
5	안사인	(시왕맞이) 본풀이	제주시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고려대 한국고전문학전집29 재수록	현용준	1959~67
6	김덕삼	(귀양풀이) 차사본풀이	제주시	한국구비문학대계	현용준	1979.12.9
7	문정봉?	차사본	대정?	풍속무음	문창현필사	1982
8	강순선	<차사본풀이>	구좌	제주도 큰굿자료	문무병	1994
9	이정자	<차사본풀이>	제주시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문무병	1998

(1)의 자료는 『朝鮮巫俗の研究(上)』(日本 大阪屋號書店, 1937)에 실려있다. 이 책은 심우성에 의해 번역되어 동문선에서 재출판되었다.⁷⁾ 1931년 10월 일본인학자 秋葉隆이 서귀포에 체재하면서 당시 서귀보통학교장 川原勘次와 교사 李大志의 협력으로 서귀포 남무 박봉춘이 전승하는 무가 16편을 채록한 가운데 구연된 것이다.⁸⁾

(2)는 일본 동경에서 출판된 『韓國の民間信仰 資料篇』(日本 金花舎, 1973)에 실려있다. 이 자료는 같은 저자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에 재수록되었다.⁹⁾ 구좌면 세화리에 거주하는 고대중 심방으로부터 1962년 8월에 채록한 자료이다. 고대중(1917~1981) 심방은 조사 당시 송당의 매인심방이었던 고봉선의 장남이다.

7) 赤松智城·秋葉隆(저)/심우성(역), 『조선무속의 연구』(동문선, 1991).
 8) 현용준, 「풍속무음 해제」, 『風俗巫音(祝祀文)』(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11 쪽
 9) 장주근, 『무속과 서사무가』(열락, 2001).

그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를 제외한 12본풀이 일체를 채록하였다. 또한 평대, 세화리, 토산웃당, 토산알당의 당신본풀이를 채록하였다. 인공적인 조건에서 구연되었지만, 제보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한 구절씩 채록한 자료이다

(3)과 (4)는 『남국의 무가』(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에 수록되었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에 재수록된 자료이다 어떤 경로로 언제 채록한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보자만 소개되어 있다. 각각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남무 56세 이영주, 남제주군 서귀읍 토평리 남무 60세 김해춘에 의해 구연된 것이다. <차사본풀이>의 다른 자료들이 제주시와 북동부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이 자료는 서쪽과 서귀포 지역의 무가를 실어놓고 있어 소중하다. 더욱이 그 무가적 내용 또한 변별되어 있다. 다만 추가적인 자료들이 없기에 이 무가들이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자료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5)은 『濟州島巫俗資料事典』(신구문화사, 1980)에 실려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1959년부터 1967년 사이에 조사되었고, 원고는 1968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주요 제보자는 안사인 심방이다. 제주도의 큰굿, 작은굿, 당굿, 당본풀이, 조상본풀이가 실려있어 제주도 무가 종류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 <차사본풀이>는 큰굿 중 시왕맞이에서 구연된 것이 채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큰굿이 실제 실연 속에서 행해진 것인지, 큰굿 순서대로 구연만을 한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후자의 것으로 짐작된다. 연유담음 부분에서 구체적인 연유가 드러나지 않고, 모든 무가에 있어 안사인이 한결같이 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혼란스러운 것은 각 무가의 말미에는 누구누구 구송, 누구누구 실연 이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공본풀이의 경우 제주시 용담동 남무 안사인 구송, 조천면 함덕리 남무 김만보 실연으로 기록해 놓았다. 무가는 안사인의 것을 채록하되, 그외 연행적 상황 설명은 실연을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6)은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에 실려있다. 이 자료는 제주시 용담동 시장안 현씨덕에서 1979년 12월 9일날 있었던 귀양풀이를 채록한 것이다. 수심방은 김창인(남, 62)이었고, 소미는 김덕삼(여, 54)이었는데, 차사본풀이는 소미 김덕삼이 구연하였다. 귀양풀이 전체가 채록되어 있어서 <차사본풀이>를 의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이다

(7)은 『風俗巫音(祝祀文)』(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에 실려있는 자료이

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보고된 유일한 제주도 필사본 무가이다. 원본은 2권으로 되어 있고, <차사본풀이>는 卷之二에 실려있다. 이 자료에는 필사한 연대와 필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1928년 문창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다행히 현용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생존해있던 문창헌을 만나면서 이 자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무가는 1982년에 채록된 것이며, 문창헌의 구춘 조카인 문정봉의 구술을 한문으로 옮겨준 것을 누군가가 한글 병기하고, 다른 자료들을 첨가하여 편집한 것임이 드러났다. 구연자는 1923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에서 출생한 문정봉으로 알려졌다. 입부는 대정읍 신평리에 살 때 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구연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무가 수업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자료가 대정읍의 무가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8)의 자료는 『제주도 큰굿자료』(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에 실려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클굿을 보고한 것이다. 동김녕은 현재 김녕리로 통합되어 있고, 위낙 어머니의 성을 써왔던 문순실은 심방으로 몇 년 전 아버지의 성을 따라 서씨로 바꿨다. 전통적으로 제주도 심방은 큰굿을 네 차례 한다. 그것에 따라 하신춤, 중신춤, 상신춤이라고 하는 이른바 심방 사회의 레벨이 존재한다. 이것을 소위 “신질을 발룬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차례대로 초신질, 이신질, 삼신질을 발루고, 대영례를 한다. 이 자료는 이중춘이 수심방으로 서순실의 삼신질을 발루는 자료이다.¹⁰⁾ <차사본풀이>는 1994년 10월 28일 시왕맞이 과정에서 구연되었고, 강순선 심방이 구연하였다. 시왕질침이 끝난 후의 <차사본풀이>는 한생소 심방이 구연하였으나 채록되지 않았다.

(9)의 자료는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에 실려있다.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칠머리당굿 보존회원들이 참여한 무가집이다. 구연자는 이정자(1959년생) 심방이다. 모계 부계 모두 심방이었고, 14세에 심방의 길로 들어섰다.

<차사본풀이> 9편의 자료 중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안사인본이다. 안사인본의 서사단락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¹¹⁾

10) 서순실의 대영례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6일에 있었고 이때 수심방도 이중춘이었다. 본 연구자들도 이때 현장 조사를 하였다.

11) 여기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풍부하게 있다는 말이다.

1. 절의 대사 유연대로 버물왕 삼형제가 정명 15 세를 연장하고자 중이 된다
2. 버물왕 삼형제가 부모님을 뵈러 절을 떠난 길에 과양생이 각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3. 버물왕 삼형제의 시체는 꽃으로 변하고 구슬로 변화여 이를 삼킨 과양생이 부인이 삼형제를 낳는다.
4. 과양생이 삼형제가 급제하여 유가하는 날 갑작스레 죽는다.
5. 과양생이 각시가 김치원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자 강림이로 하여 금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한다.
7. 강림이가 큰 부인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큰부인은 강림이의 저승갈 준비를 한다.
8. 큰부인집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으로 저승에 이르는 길을 안내 받는다.
9. 저승길을 지키는 질토래비 질감관의 도움으로 저승의 원대문에서 염라왕을 기다려 잡는다.
10. 염라왕과 함께 장재 말젓뜰애기 전새남을 받아먹으러 간다. 염라왕이 변신하자 이를 알아챈다.
11. 염라왕이 이승 올 것을 약속받고 강림이가 이승으로 돌아온다
12. 염라왕이 이승에 와 버물왕 삼형제를 살리고, 과양생이 부부를 벌준다
13. 염라왕이 강림이의 혼을 뺏어가 저승으로 데려간다. 이승의 강림이는 죽는다.
14. 강림이가 까마귀에게 적배지를 맡기는 바람에 죽음의 질서가 깨진다
15.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내어 능력을 인정받고, 염라왕은 강림이를 인간차사로 명한다.

앞서서 이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이본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서사단락을 단순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본간의 서사단락 비교는 다음의 표로 표현된다.

이 말은 가장 최선본이다, 완성본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내 용	박봉춘	고대중	이영주	김해춘	안사인	김덕삼	문창현	강순선	이정자
1. 버물왕 삼형제가 명을 연장하려 절에 간다.	+	+	+	+	+	+	+	+	+
2. 버물왕 삼형제가 과양생이 각시에 게 죽임을 당한다.	+	+	+	+	+	+	+	+	+
3. 과양생이 각시가 구슬을 삼키고 삼형제를 낳는다.	+	+	+	+	+	+	+	+	+
4. 과양생이 삼형제가 과거급제해서 돌아온 날 죽는다.	+	+	+	+	+	+	+	+	+
5. 과양생이 각시가 김치원에게 소지 올리고 강림이에게 염라왕을 잡아 도록 한다.	+	+	+	+	+	+	+	+	+
6. 강림의 큰부인이 저승길을 위해 준비한다.	+	+	+	+	+	+	+	+	+
7. 강림이 조왕할망 등의 도움으로 저승길을 간다.	+	+	+	+	+	+	+	+	+
8. 염라왕을 잡고 이승에 올 것을 약속받는다.	+	+	+	+	+	+	+	+	+
9. 염라왕이 이승에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	+	+	+	+	+	+	+	+
10. 염라왕이 강림이의 혼을 뺏어 저승으로 돌아간다.	+	+	+	+	+	+	+	+	+
11. 강림이가 적배지를 까마귀에 맡기고, 까마귀의 실수로 죽음의 질서가 깨진다.		+		+	+	+		+	+
12.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내어 인간차사가 된다.					+	+	+		

참고: '+' 표시는 각 이본에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각 이본들은 공통적으로 (1)~(10)까지의 공통된 서사단락을 가지고 있고, (11)과 (12)는 선택적으로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화의 구조를 흔들릴 만큼의 이본별 차이는 <차사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들이 나타나는 단락들은 (1), (5), (7), (11)이다.

(1)의 단락에서 버물왕 삼형제가 절에 가는 이유는 이본별 차이가 벌어진다. 일

반적으로 절의 노승이 유언을 했거나 죽어 소사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버물왕 삼형제의 단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이유가 설명이 된다. 즉, 단명의 운명을 타고난 버물왕 삼형제가 절에 와서 살면서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봉춘 구연본에서는 삼형제가 절로 가지 않고 장사치가 되어 세상을 떠돌면서 고생을 하라고 대사가 말한다. 김해춘 구연본에서는 대사의 예언이나 현몽 없이 그냥 길을 가다 만난 중이 삼형제를 보고 단명의 사실을 알린다. 한편 소소한 차이들도 존재한다. 버물왕의 형제가 9형제가 아닌 7형제인 이밖 고대중 구연본)이 있는 점, 삼형제가 중이 되는 이본이 있는 반면 원불수륙을 드리러 가는 이본도 있는 점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구조적인 차이가 될 수 없다.

(5)의 단락에서는 과양생이 각시가 김치원에게 소지 올리자 김치원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목에서 이본별 차이가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강림이를 통해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어느 이본에서는 김치원 본인(김덕산)이 그 계획을 세우지만, 어떤 이본에서는 부인이 묘안으로(안사인, 이영주, 이정자), 지동통인(박봉춘, 강순선), 부하 사령(고대중, 김해춘, 문창헌)에게서 제의를 받는다.

(7)의 단락에서는 강림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원조자들이 등장한다. 이 단락에 앞서 큰부인이 강림의 저승길을 준비하면서 떡을 세 시루 찐다 한 시루는 조왕을 위해, 한 시루는 문전을 위해, 그리고 한 시루는 강림의 식량으로 준비한다. 이를 통해 조왕할망과 문전하르방의 도움이 (7)단락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토래비 질나장이 등장하여 염라왕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보를 한다. 그러나 이본에 따라 조왕할망만 나타나는 이밖 박봉춘 고대중 강순선), 새로운 신격이 등장하는 이본(박봉춘 삼신선, 김해춘 토신 점쟁이)들이 존재한다. 문창헌 필사본에서는 질토래비 다음에 저승 도군문을 지키는 두 문지기가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염라왕의 동태를 알게 된다

(11)의 단락에서는 염라왕이 강림에게 적배지를 인간세상에 전달하라고 임무를 부여한다. 그에 따라 인간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차례로 저승에 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에 온 강림이에게 까마귀가 접근하여 그 적배지를 대신 돌리겠다고 했다. 강림이가 까마귀의 날개 밑에 적배지를 붙여주었으나 그것이 떨어지면서 뱀이 그것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결과로 사람의 죽음 순서가 뒤엉키게 되었다

는 내용이다. 김해춘 구연본에서는 염라왕이 직접 까마귀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덕산 구연본에서는 이 대목이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기 전에 구연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문창헌 필사본에서는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적배지가 아닌 편지로 표현된다. 또 까마귀의 잘못으로 인간 죽음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울음을 잘못 울어서 영똥한 사람이 저승에 데려온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강림이가 까마귀에게 어떻게 울어야 할지를 다시 일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본들 중에 차이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풍속무음이라는 필사본 무가에 수록된 문창헌 필사본과 진성기가 채록한 이영주 구연본, 김해춘 구연본이다

문창헌 필사본은 몇 개의 화소가 삽입되거나, 내용이 다른 것이 특징적이다. (1)의 단락에서는 버물왕 처가 세 명이고 각각 세 명의 이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의 단락에 앞서 삼형제가 13세가 되었을 때 저승의 삼차사가 내려와 잡아 가려고 하나 실패한다는 대목이 유일하게 이 구연본에만 삽입되어 있다. (2)의 단락에서 과양생이가 삼형제를 죽이는 방법이 독술로 죽이는 것이 다르다. (6)의 단락에서는 큰부인 뿐만 아니라 이들과 만나면서 무심한 아버지로서의 강림이를 그려내고 있다. (7)의 단락의 다른 구연본은 질토래비가 염라왕의 움직임을 알려주어 잡는데 일조하지만, 이 필사본에서는 초군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알려준다. (8)의 대목에서는 강림에게 잡힌 염라왕이 이승의 곳을 같이 받아먹으러 가자고 제의하고, 거기서 강림이를 속이려고 변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염라왕이 부영새와 쉬파리로 변하자, 강림이는 매와 거미로 변하여 잡아낸다. 백강생이를 따라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승의 풍경들이 묘사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상뿔죄를 진 사람, 무당, 착한 사람이 그려진다. 한편 다른 필사본에서는 강림이가 적배지를 까마귀에게 맡기고, 까마귀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의 질서가 깨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필사본에서는 내용이 다르다. 까마귀의 잘못 울음으로 한 처녀가 죽게 되고, 강림이가 이를 혼내며 상황에 따른 울음 방법들을 지시한다. (12)단락에서는 염라왕이 강림이를 왕차사로 임명하여 동방삭을 잡아오도록 명하고, 강림이가 채비를 하는 대목에서 끝이 난다.

이영주 구연본은 함흥의 짐가제굿과 가장 친연성이 보이고,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차사가 되는 신격 좌정 대목이 없다. 앞서 서사단락 비교표 중 (2)의 단락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배가 고파 과양생이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가

면서 사건이 발단되지만, 이 자료에서는 삼형제가 연하못에서 줄고 있을 때 물을 길으러 온 과양생이 각시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삼형제가 중의 행색이 아닌 장사꾼인 듯 행동한다. (3)의 단락에서 대부분의 구연본에서는 꽃을 태워 구슬이 되고, 그 구슬을 발견한 뒷집 마귀할멈에게서 뺏는 것으로 설정되었지만, 이 구연본에서는 쌀을 주고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다. (8)의 단락에서 염라왕을 잡는 장면도 다른 이본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다른 이본들은 강림이가 질감관에 의해 저승문 앞까지 당도하는, 장소의 이동이 등장하지만 이 이본에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잡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김해춘 구연본은 다른 이본들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단락들이 삽입되는 특징이 있다. 또 앞서 보았던 문창헌 필사본과의 유사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1)의 단락에서 절에 오기 전에 먼저 세상 구경을 하고, 이때 과양생을 조심하라는 조언을 하는 대목이 있다. 또 버물왕은 하늘옥황이라고 제시되기도 한다. (5)의 단락에서 염라왕을 잡도록 강림이를 천거하는 대목에서 강림이에게 고통을 당한 부하 사령들에 의해 밀고 당하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6)의 단락에서 큰부인이 강림의 저승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부인들을 불러서 같이 농사짓고 방아를 찧는 대목이 유일하게 이 자료에는 삽입되어 있다. (8)의 대목에서 염라왕의 변신이 대들포, 스라비, 황주냉이로 세 번 이루어진다. 또 강림이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이본들은 백강생이의 인도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묘사되지만, 이 구연본에서는 강림이가 본 저승의 모습들이 묘사된다. ① 상피엿짓했던 죄인, ② 도둑질했던 죄인, ③ 돈 존 사람, ④ 굶는 장면들이 드러난다. 이 저승의 모습을 구연한 부분은 문창헌 필사본과 김해춘 구연본만의 특징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강림이가 부모 형제를 만나 자신이 저승에 갔었을 때의 심정을 묻는 대목이 죽음의 질서가 깨진 대목 이후에 구연된다. 보통 이 대목은 강림이가 염라왕의 약속을 받고 먼저 이승에 돌아온 뒤 가족을 만나는 대목, 이른바 (8)의 단락에 해당되는데 김해춘 구연본에서는 이 단락이 마지막으로 독립되어 있다.

채록된 이본을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제주시 3, 제주 동부 2, 제주 서부 1, 서귀포 3편이다. 이중 본 연구자가 이질적이라고 분석한 자료는 필사본 1, 서귀포 1편과 제주 서부 1편이다. 제주시와 동부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제주곳의 연행에 있어서도 함덕, 김녕, 구좌, 세화, 동복의 제주 동부와 표선, 남원

서귀포의 제주 남부 지역, 애월, 한경, 대정 등의 제주 서부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이 무가의 문면에서도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자료들도 공통적으로 제주 지역의 <차사본풀이> 서사단락을 줄기로 가지고 있고, 특정 단락이 첨가되거나, 특정 부분의 구술이 변형되고 있다.

III. <짐가제긔> 무가와와의 비교를 통한 <차사본풀이>의 성격

<차사본풀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말해지는 <짐가제긔> 무가는 함경도 함흥의 죽음의례인 망목이긔 또는 새남긔에서 연행되는 한 거리에서 불려진다. 그 거리의 이름이 <짐가제긔>이다. ‘짐가제’는 무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며,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망목이긔은 이 무가 외에도 <도랑선비와 청정각사>, <오기풀이>, <붉은선비와 영산각사>, <양산백과 축영대> 등 수많은 서사무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승이 끊겼고, 그 무가는 임석재 채록본과 김태곤 채록본 뿐이다¹²⁾ 연행 양상 또한 소개되지 않아 오로지 서사 연구만이 가능할 뿐이다. 임석재 채록본은 지금섬이 구연한 것으로 되어있다.¹³⁾ 구연 방식은 지금섬이 장구를 치며 가창하고, 양푼을 조무가 쳐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태곤 채록본은 이고분이 구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고분은 무척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힘들게 서사무가만을 녹음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고분은 <짐가제긔>이 아닌 <진가장긔>이라고 불렀다.

채록된 두 편의 <짐가제긔> 서사 단락을 앞서 살펴본 <차사본풀이> 서사 단락에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된다. 하지만 채록된 두 편의 <짐가제긔>도 그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보도록 한다.

12) 임석재·장주근,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3): 관북지방무가』(문화재관리국, 1965); 김태곤 『한국무가집(3)』(집문당, 1978).

13) 임석재가 지금섬을 알게 된 계기는 소설가 안수길의 부친으로부터의 소개였다. 또 이후에 부산에서 큰무당으로 알려진 함흥 출신의 강춘옥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강춘옥 일행을 임석재 자택에 머물게 하며 고향을 벌이도록 하였고, 이를 채록한 결과가 관북무가이다. 황루시, 「임석재론」, 『구비문학연구』, 2집(1995), 345~365쪽.

<차사본풀이>	지금섬구연 <짐가제곳>	이고분 구연 『진가장곳』
1. 버물왕 삼형제가 명을 연장하러 절에 간다	세 도령이 세상 구경을 떠난다.	삼형제, 과거에서 돌아오는 길
2. 버물왕 삼형제가 과양생이 각시에게 죽임을 당한다.	세 도령이 짐가제에게 죽임을 당한다.	"
3. 과양생이 각시가 구슬을 삼키고 삼형제를 낳는다.	짐가제 부인이 붕어를 먹고 삼형제를 낳는다.	"
4. 과양생이 삼형제가 과거급제해서 돌아온 날 죽는다.	짐가제 삼형제가 과거급제해서 돌아온 날 죽는다.	"
5. 과양생이 각시가 김치원에게 소지 올리고 강림이에게 염라왕을 잡아도록 한다.	짐가제가 관가에 사자를 잡아달라고 청하고, 강림골 손사령에게 임무가 주어진다.	못나고 못난 인 충신 한분이
6. 강림의 큰부인이 저승길을 위해 준비한다	손사령이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이 기지를 발휘한다.	"
7. 강림이 조왕할망 등의 도움으로 저승길을 간다.	손사령이 떡을 가지고 다리 밑에 기다리다 저승사자를 만난다.	"
8. 염라왕을 잡고 이승에 올 것을 약속받는다		"
9. 염라왕이 이승에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저승사자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
10. 염라왕이 강림이의 혼을 뺏어 저승으로 돌아간다.	손사령을 열시왕 사령으로 데려갔다.	못나고 못난 인 간은 허재비되어 다리와 질에다 장 승을 매놓았다
11. 강림이가 적배지를 까마귀에 맡기고 까마귀의 실수로 죽음의 질서가 깨진다.		
12.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내어 인간차사가 된다.		

서사 단락이라는 단순화된 문장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차사본풀이> 와 <짐가제곳>은 거의 동일한 서사 내용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 명의 아이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 살인자의 세 자식도 죽음을 당한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승의 존재가 저승의 존재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승의 존재는 저승의 존재, 이른바 신격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같지만

다른 양상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다른 양상은 선행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구조를 흔들 만큼은 아닌 부분적인 표현 차이라고 치부되었다.¹⁴⁾

하지만 다음의 차이점들을 생각해본다면 단순하지만은 않다.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과 갖는 차별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과 같은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지만 <차사본풀이>만의 서사단락들이 존재한다. 이승왕과 저승왕의 대결이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이점을 통해 <차사본풀이>가 보다 풍부한 서사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강림의 신격 좌정을 포함한 이후의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 신의 근본을 밝히는 것이 강조된다는 점, 세 번째 <차사본풀이>의 신화가 이후 연행되는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름 아닌 <차사본풀이>의 제주도 신화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 대결(갈등)의 복합

<차사본풀이>나 <짐가제굿>에서 주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그것의 해결 과정을 담고 있다. 과양생이 부부의 극악스런 요청에 김치원님이 무척 시달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강림이라는 사령을 이용하는 것이 <차사본풀이>의 내용이다. <짐가제굿>에서는 두 이본별 차이가 드러난다. 지금섬 구연본에서는 <차사본풀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이고분 구연본은 이와 다르다 우선 지금섬 구연본에서는 짐가제가 관가에 가서 억울한 죽음을 위해 저승사자를 잡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손사령이 동원된다. 그런데 <차사본풀이>와의 차이점은 단순히 강림이와 손사령이라는 이름 정도가 아니다. 심각한 차이는 김치원이라는 마을 수령에 대한 것이다. <차사본풀이>는 김치원님이라고 하는 마을 수령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과양생이가 계속해서 이 원을 괴롭혀서 힘들어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 강림이가 저승에 가서 염라왕과 대적할 때 “이승왕도 왕이고, 저승왕도 왕”이라는 대목 등을 통해 김치가 이승의 왕으로 상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짐가제굿>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14) 두 무가가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대석의 앞 논문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길게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짐가계>과 달리 <차사본풀이>에서 중요한 대결 구도 중 하나가 김치원과 염라왕 대결이다.

김치원과 염라왕의 대결은 이승왕으로서의 권위, 저승왕으로서의 권위로 상징된다. 이 대결 구도는 설화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인간계와 신계의 대결 또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도 일반화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 과정에 드러나는 사고에 있어 <차사본풀이>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차사본풀이>에서 연유가 어떻게 되었든 저승의 왕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김치원이 한다. 이승에서 일어난 죽음의 문제를 저승의 힘을 빌린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으로 저승왕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것이 아닌 죄인 다루듯이 잡아온다는 설정을 통해 이승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치원 자체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주위의 원조자를 통해 강림이를 발탁하고, 그로 하여금 저승왕을 잡아오는데 성공하니 이승왕으로서의 권위는 사는 듯 보인다. 일방적인 신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간계와 신계가 동등하고자 하는 인식이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저승왕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리저리 숨어다니는 모습 속에서 이승왕 김치원의 권위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궁극에 저승왕에게 강림이를 뺏기고 만다. 잠시 인간계와 신계의 수평적 이원 체계로 보여진듯 하나 결국 수직적 이원 체계로 바뀐다. 즉, 인간계가 신계나 동등하다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듯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신계의 우위가 증명되는 셈이다.

<차사본풀이>는 창세신화 중 인세차지경쟁 화소(motif)와 닮아있다. 인세차지경쟁은 인간계를 차지하고자 하는 존재들 간의 대결이다. 이 대결 과정에서 몇 가지의 시합이 벌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속임수를 쓴 대상이 인간계를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창세가>, <생긔>, <삼태자풀이>, <천지왕본풀이> 등이 있다. 한편 이 인간세상을 두고 벌이는 대결이 국조신화에는 나라 터로 대치된다.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주몽신화>와 <석탈해신화>이다. 이 신화들은 영웅적 능력 사술, 주술적 권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창세신화와 공통적이다. 또 한편으로 속임수를 통해 이긴다는 점이다.¹⁵⁾

이런 기준점들로 <차사본풀이>를 보면 이승왕 김치원과 저승왕 염라왕이 차지

15) 김현선,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158~160 쪽

하려고 하는 것은 유능한 심부름꾼이다. 그렇다고 보통 신화들과 같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 인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극명한 대결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육체와 영혼을 나눠 갖는 것으로 대결 대신 화해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 화해의 이면에는 저승왕의 속임수가 있었다. 사람은 혼이 육체에서 빠지면 죽기 때문에 결국은 염라왕 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승왕 김치원은 죽음이라는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하여 패하게 된다. 김치원이 죽음의 신비를 모르는 증거는 여러 번 등장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승과 저승이 나뉘어져 오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림이를 저승으로 보낸다. 또 강림에게 저승 들어갈 증표를 써줄 때 빨간종이에 흰글씨가 아닌 흰종이에 빨간글씨를 써주는 대목도 있다. 이 부분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겨루는 지혜 대결과도 유사하다.¹⁶⁾ 창세신화의 인세차지경쟁이 국조신화에는 국토차지경쟁으로, <차사본풀이>에서는 인재(人材)차지경쟁으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¹⁷⁾

창세신화에서는 인간의 창조 부분만이 등장할 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신화 <창세가>에서는 인세차지경쟁이 속임수로 인하여 그 주체가 바뀌어 인간세상이 악이 퍼지게 된다. 이 내용은 인간세상이 왜 불완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다. <차사본풀이>가 제기하고 있는 인간세상에 왜 죽음의 질서가 뒤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 또한 인간 근원적인 질문에 해당된다. 다만 <창세가>에서는 속임수와 인간세상의 악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었지만, <차사본풀이>는 삽화적으로 덧붙여져 있다는 점이 차이난다. 하지만 창세신화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심인 인세차지경쟁, 악의 근원이라는 문제를 <차사본풀이>에서는 인재차지경쟁, 죽음의 질서라는 문제로 대치되고 있다.

<차사본풀이>가 국조신화 내지는 창세신화와의 관련성이 있는 대목은 강림이와 저승왕의 대결을 통해서도 등장한다. 강림이에게 잡힌 염라왕이 강림이를 따돌리기 위해 이승의 곳을 받아먹으러 가고, 거기서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나, 강림이는 좀더 상위의 존재로 변신하여 잡아낸다.

16) 박종성, 「창세서사시 변이 전승과 시대적 변천」,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태학사, 1999), 271~276쪽

17) 이렇게 변이되는 과정은 신에 대한 관념의 약화외도 맞물려 있다. 창세신화에서는 신들과의 대결 구도이지만, 차사본풀이에서 보이는 것은 인간 김치원과 신 염라왕의 대결로 표현되고 있다.

강님이가 먼 문 뱃기(外) 나사난 조왕할마님이 말을 하되 강님이야 염내왕은 새몸(鳥身)에 환생(還生)허연 큰대 고고리에 앉아서 대뜸으로 큰대를 싸암 시민 알 도리(道理) 이시리라 강님이 둘러들언 큰대를 싸젠 허난 염내왕이 강님의 흘목을 심으멍 강님의 눈을 췌길 수 엇구나(안사인 구연본).18)

강님은 서서이 드러오고 보니 염내대왕이 눈에 안보이는고나 조왕할망을 사문절박하고 염내대왕 어디갓소 큰대웃고고리 바라여보소 바라여보니 부영새 한머리가 안자고나 강님은 매가 되고 한날개로 탁 치니 업고나 상당대래 바라여보니 쉬파리몸으로 변색하여 우두건이 안자고나 강님은 거미가 되고 파리발을 빙빙 절박하여 부니 염내대왕은 강님이야 정말 역역하다(문창헌 필사본).19)

두 존재의 변신 대결을 통해 상대의 신이함을 시험하게 된다. 이 대결의 결과를 통해 강림은 염내왕의 힘을 얻어 이승에서 벌어진 죽음 문제 해결을 이루어낸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모든 사건의 진행에서 객체로만 놓여진 강림이의 모습이 신이한 존재로, 그리고 주체로 그려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신이한 존재의 변신 대결은 문헌신화인 <동명왕편>에 등장한다. 해모수와 하백의 대결이 그것이다. 딸 유화를 줄 만한 인물인지 알고자 하백이 제안한 시합이다 여기서 해모수가 하백보다 더 상위의 동물로 변하여 이기게 된다.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庭前水 化爲鯉 隨浪而游 王化爲鱓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화하여 물결을 따라 노니니 왕이 수달로 화하여 잡았고, 하백이 또 사슴으로 화하여 달아나니 왕이 승냥이로 화하여 쫓았고, 하백이 꿩으로 화하니 왕이 매로 화하였다 하백은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20)

18) 현용준, 앞의 책(1980), 261 쪽
 19) 『風俗巫音(祝祀文)』(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104~105 쪽
 20) 『동명왕편』, 한국고전번역원 원문서비스(<http://www.itkc.or.kr>).

<차사본풀이>에서는 이승왕이 김치원님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김치(金緻, 1577~1622)라는 인물이 다양한 기록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²¹⁾ 제주도에서 김치라고 하면 본토의 김씨, 즉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파악되므로 선불리 역사적인 인물인 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지 모른다. 그런데 김치에 대한 역사 기록과 설화의 기록들이 흥미롭게도 <차사본풀이>의 김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김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역술에 능하여 인조가 임금이 됨을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는 비리관리로 묘사되나 그와 반대로 설화에서는 김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묘사된다.

『광해군일기』나 『인조실록』 등의 정사에는 ‘천문에 밝았으나 재물을 탐내어 비난을 받았다’고 하였고, 광해군 때는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지에 올랐으나 매직사건으로 파면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야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극히 긍정적인 기사가 많다. / 김치가 안동 사람으로, 흥덕현감으로 나가 선치를 하여 그 행적이 읍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송덕비도 있다. / 김치가 흥덕현감으로 있을 때, 그 정치가 엄정하고 신명스러워 백성들이 감복했다 / 김치는 엄정한 정치를 하였고 恩宥를 분명히 해 송나라 구룡도(=포청천)의 귀신같은 재판에 비길 정도로 명쾌했다.²²⁾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치가 죽어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역술에 능한 심곡 김치가 죽었다. 이웃사람 하나가 죽어서 명부에 가보니 심곡이 염라대왕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심곡이 그를 보고 아직 수한이 남아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고서는 자기 집에 가면 모처에 평소에 자기가 쓰던 옥관자(금권자)가 있으니 식구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죽은 지 하루만에 깨어나 심곡의 말을 전하므로 그 아들 백곡 김득신이 찾아보니 과연 옥관자가 있었다.²³⁾

광주부윤 김모가 죽어 명부에 갔다가 부왕이 염라대왕이 죽으려 하기에 김치

21) 이 부분에 대한 천착은 안병국, 『저승설화연구』, 『우리문화회』, 16집(2003), 237~270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2) 안병국, 위의 논문(2003), 263 쪽

23) 『輯要 2』 438~439 쪽, 안병국, 위의 논문(2003), 262 쪽 재인용

로 대신하려고 하였는데 김모를 잘못 데려왔다면 돌려보내 다시 살아났다.²⁴⁾

이 기록들을 통해 김치라는 실존인물과 <차사본풀이>에 이승왕으로 등장하는 원님 김치가 단지 음운적 유사성만 있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김치와 관련한 이야기와 <차사본풀이>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김치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두 이야기는 죽음의 세계가 등장하고, 염라대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차사본풀이>에서 김치는 마땅히 능력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다만 부인, 강림 등의 인물을 통해 이승에서 일어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저승왕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저승왕과 직면할 때는 나약함을 드러내고, 죽음의 비밀을 몰라 유능한 사령을 저승사자로 뺏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반된 역사의 기록과 설화의 기록이 <차사본풀이>에서는 적당히 섞여있는 셈이다. 그의 판결을 믿고 문제를 맡기었고 결론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김치는 나약한 존재이며,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풀려진다. 한편 설화에서 김치가 죽어 염라왕이 된다는 설정이 <차사본풀이>에서는 이승왕과 저승왕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고 있다. 이처럼 <차사본풀이>는 김치와 관련된 여러 역사 기록과 설화를 재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의 이야기에 이승왕의 김치원 이야기가 부가된 형태를 취한다.²⁵⁾ 이승왕과 저승왕이라는 대결 구도는 창세신화나 국조신화에서 나타나는 신들과의 영역 대결이 인물대결로 나타났다. 또 김치원이라는 인물의 설정은 구전되는 인물담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에 비하여 풍부한 설화적 자산을 두루 함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으로는 왜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과의 차이가 생겼는가를 해명하기는 힘들다. 그러기에 다음의 차이점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

24) 『輯要 2』 220-221쪽, 안병국, 위의 논문(2003), 263쪽 재인용

25) 물론 반대로 <차사본풀이>를 원형으로 인지하는 시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차사본풀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본풀이로서의 성격

죽음의 문제는 <차사본풀이>나 <짐가제굿>에서 저승의 존재가 해결하지만 그들의 힘을 빌어오는 것은 이승의 존재이다. 강림이와 손사령 등이 그들이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등장한다. 이른바 어떻게 저승의 존재들을 데려오는가와 관련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부인이 돕고 조왕과 문전의 가신들의 도움으로 저승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염라왕과 대적하여 잡아 이승에 올 것을 약속받는다. 이에 반하여 <짐가제굿>은 부인의 도움을 받지않고 저승이라는 공간이 그려지지 않는다. 또한 염라대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저승사자를 만나 도움을 청한다. 따라서 <차사본풀이>는 죽음의 공간, 저승에 대한 관념이 <짐가제굿>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본에 따라 저승의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한다.

강림이의 이승에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지만, 한결같이 똑똑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침을 많이 거느리고, 큰부인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당장 목숨을 구하고자 대책 없이 저승 염라왕을 잡아오겠다고 약속할 뿐이다. 큰부인의 원조가 없었다면 고스란히 죽음을 면치 못했을 모습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강림의 모습은 이승에서 저승의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완전히 바뀐다.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능력으로 염라왕을 단번에 결박해낸다. 변신한 염라왕을 알아채리는—물론 판본에 따라 조왕할망을 결박하여 제보를 받는 방식을 취하지만—능력을 발휘하여 결국 염라왕이 이승에 오도록 한다. 강림이가 저승왕인 염라왕을 포박한다는 설정은 인간계와 신계의 대결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인간계 존재가 살아서 저승을 간다는 설정 그리고 저승왕을 결박한다는 설정 속에서 인간계 위상이 사뭇 진작되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는 저승왕이 해결하고, 또 강림이도 저승왕의 차사로 좌정하는 면에서 신계의 우위로 대결은 끝난다. 결론이 이렇다 하더라도 인간계가 신계와 대등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차사본풀이>에서는 함유한다고 하겠다

한편 이승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 강림, 손사령이 저승으로 가 신격이 된다는 점도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굿>의 공통점이었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인간차사가 된다고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짐가제굿> 지금섬 구연본에서는 손사령을 열시왕 사령으로 데려가지만 이

고분 구연본에서는 장승이 되었다고 했다. 공통적이긴 하더라도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에 비해 이승의 인물이 어떻게 저승의 신격으로 자리하는 지가 강조된다. 이 점은 세 가지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저승 여행이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저승 여행을 통해 이승의 존재에서 저승의 존재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림이의 능력이 강조된다 즉 염라왕을 포박한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근거를 삼아 저승에서도 인간을 잡아오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세 번째로 저승의 존재가 된 강림이에 대한 서술이 있다 이후 <차사본풀이>에서는 이승에서 죽음의 질서가 왜 깨졌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강림이와 까마귀, 그리고 동방삭을 잡아오는 강림이의 능력 부분이 <차사본풀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제주도굿의 특징은 본풀이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일반신본풀이가 12개 존재하고, 그 외에 여러 지역의 당신본풀이 집안마다의 조상신본풀이까지 합쳐보면 수많은 본풀이를 보유하고 있다. 본풀이는 어떻게 한 인물형이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사본풀이>가 <짐가제굿>에 비해 이승의 인물이 어떻게 저승의 신격으로 자리하는 지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제주도굿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마다 굿의 연행은 다르다 그것의 문화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무풍(巫風)이 지역마다 존재한다. 이런 무풍은 무가의 양상과도 맞물린다. 예를들어 서울굿에서는 무당의 영험한 예지력과 신의 위엄, 그리고 삼현육각의 풍류 등이 특징적이다. 무가에 있어서 교술무가의 비중이 높고, 서정무가라 할 수 있는 삽입가요들이 많이 불러진다. 서울의 예로 서사무가, 즉 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녀가 장구를 자장단으로 치며 구송하는 바리공주 뿐이다. 동해안에서는 타악 장단이 세분화하여 발달되었으며, 춤과 놀이가 발달된 가운데 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사무가가 5편이 존재한다. 서사무가는 제마수장단에 얹어 부르며 별신굿의 심청굿, 제석굿, 손님굿, 제면굿, 오귀굿의 발원굿이 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제주도에서 압도적으로 본풀이가 많다는 것은 단지 굿을 하는 무당들만의 이유가 아닌 그 연행을 듣고, 보고, 즐기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

<차사본풀이>는 신화이다. 또한 본풀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근본 내력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림이라는 인간이 저승차사라는 신격으로 자리잡는다

는 것이 <차사본풀이>의 신화적 핵심이다. <차사본풀이>는 이렇게 신격으로 좌정하기까지의 활약, 그리고 이후의 활약까지도 잘 드러나 있는 신화이다. 본풀이로서의 기능을 잘 가지고 있다 하겠다. <차사본풀이>나 <짐가제굿>에서 등장하는 신격은 저승사자이다. <짐가제굿>에서보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그 신격의 좌정담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또 <차사본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세계 내지는 죽음의 문제를 등장시켜 죽음과 관련한 신격으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국 망자천도굿에서는 죽은 존재를 천도하는 존재가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바리공주가 있다. 이 바리공주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하여 저승여행을 하고, 아버지를 살린 뒤 신격으로 자리한다. 제주도 망자천도굿인 시왕맛이에서는 바로 이 바리공주의 역할을 강림차사가 하고 있다.²⁶⁾ 전국 망자천도굿에서 저승사자가 보편적으로 등장하나, 그 존재는 망자를 천도시키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 제주도 <차사본풀이>에서 등장하는 강림차사는 특수성을 가진다 하겠다.

3. 신화와 제의와의 상관성

<차사본풀이>의 서사 내적 특징에 두었던 관심을 외적으로 확장해보면 <차사본풀이>의 또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굿>이 시왕맛이 그리고 망목이굿에서의 존재 양상과 의의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구비되는 신화는 제의 속에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의 속에서 연행되었을 때 비로소 그 신화의 의미가 명료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짐가제굿>은 제의 전승이 끊겼으므로 온당한 비교가 가능할 수 없겠으나 채록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삼고자 한다.

<차사본풀이>가 구연되는 의례인 시왕맛이는 오늘날도 전승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 그러나 <짐가제굿>이 구연되는 함흥의 굿은 무가만이 전해지므로 그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짐가제굿>도 이런 모호함에 자리잡고 있다.

함흥의 망자천도굿에서 이 <짐가제굿>이라는 굿거리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차사본풀이>와 유형이 같은 얘기이니 함흥에서도 신의

26) 이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10집(2005)에서 제기한 바 있다

기원을 설명하는 무가인가 가정을 해보지만 곳거리 명칭과 위배된다. 그럼 곳거리 명칭이 <짐가제곳>이니 짐가제에 강조점이 놓인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짐가제곳> 무가는 부당한 이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짐가제를 징치(징치)하는 신화임을 그 명명법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 이것이 곳 의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가 문제이겠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 곳이 살(殺)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해설하였다.²⁷⁾ 이와 맞물려 죽음의 질서를 깨뜨린 사악한 존재를 징치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고픈 망자 가족들의 마음과 합치한다고 보여진다. 죽은 망자의 영혼을 곳판에 불러 깨끗한 존재로서 전환시켜 극락이라는 좋은 공간으로 천도하는 것이 망자천도곳의 핵심이다. 이때 이승의 존재에서 저승의 존재로 전환하기 위하여 망자도 가족들도 서로 엮혀있는 미련들을 거두어야 한다. 아마도 <짐가제곳>은 이런 미련들을 끊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곳을 여행하는 사제자들이 왜 곳거리 명칭을 <짐가제곳>이라고 지었는가를 염두에 둔 대답이다.

좀더 시야를 확장하여 전국의 망자천도곳의 보편으로 보자면 <짐가제곳>은 저승사자에 대한 곳이 틀림없다. 망자가 본격적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천도의 주재자가 등장한다. 보통 바리공주와 같은 대상이 존재한다. 서울곳에서는 저승사자를 놓고 그다음 바리공주를 논다. 왜 이 두 존재가 상존하는가하는 문제는 간단치만은 않다. 한 서울곳 만신은 저승으로 데려가는, 이른바 재판으로 치자면 호송의 업무를 저승사자가 맡고, 바리공주는 변호사 역할, 시왕은 판사의 역할을 맡는다고 인지한다.²⁸⁾ 동해안 오귀곳에서도 시무염불이라고 하는 저승사자와 관련된 무가가 불려지고, 이어 발원곳에서 바리데기 무가가 불려진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60년대 이후에 정착된 것이다.²⁹⁾ 그 이전에는 발원곳에서 바리데기 무가가 불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저승사자가 반드시 천도의 과정 직전에 놀아진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천도의 과정은 도령을 돈다거나, 길베를 찢는다거나, 길을 닦는다는 의례적 행위로 구체화된다. 제주도곳에서는 저승사자와 바리데기의 역할이 강림차사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함흥

27) 김태근, 앞의 책(1978); 전경욱, 『함경도의 무속신앙』, 『함경도의 민속』(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28) 서울곳 만신 이상순의 의견이다.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

29) 김형근, 『동해안 오귀곳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망목이곳에서도 <짐가제곳>은 바리데기 공주가 불려지는 <오기풀이>의 앞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짐가제곳>도 저승차사에 대한 곳거리로 보여진다. 저승차사를 잘 대접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이나, 손도령이 시왕의 사령이 된다는 부분들은 유감없이 <짐가제곳>이 저승차사 신화임을 드러낸다. 단지 어떤 등장인물의 특성을 부각시켜 곳거리의 명칭이 부각되었을 따름이다.³⁰⁾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곳>은 저승사자가 주신격으로 등장하는 무가이다. <차사본풀이>라고 하면 시왕맞이라는 제주도 망자천도곳에서 구연되는 무가 부분이지만, <짐가제곳>은 함흥의 망자천도곳인 망목이곳 중 하나의 곳거리 이름이기도 하고 무가의 이름이기도 하다.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에서 구연된다. 시왕맞이는 망자천도곳에 해당된다. 그것을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종합 무속제의인 큰곳에서는 부분이기도 한다. 시왕맞이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³¹⁾

- (1) 초감제 : 베포도업침, 날과 국섬김, 집안연유 닦음, 군문 열림, 산반아 분부사림, 주잔넘김, 새드림, 도레둘러맵, 신청께
- (2) 방광침 : 초방광 처서 지옥을 새내움, 추물공연, 이방광 추물공연, 막방광 추물공연
- (3) 체스본풀이 : 공선가선,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닦음, 들어가는말미, 헤심곡본풀이, 비넘, 주잔넘김, 산반아 분부사림
- (4) 시왕 도올리고 석살림 : 도올림, 상축권상, 역가올림, 산반아 분부사림, 상단숙여 소지사림
- (5) 액막이 : 날과국섬김, 집안연유닦음, 스만이본풀이, 산반아 분부사림, 비넘
- (6) 나까도전 침 : 나까시리 놀림, 지장본풀이
- (7) 삼천군병질 침 : 삼천군병 지사빔, 산반아 분부사림, 실명질 지사빔, 공시풀이, 고리동반 품
- (8) 질침(므른질침) :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집안연유 닦음, 군문열림, 지옥

30) 이는 동해안에서 ‘군웅장수곳’이 돛동이를 무는 특성을 따서 ‘돛동이곳’으로 불린다거나, 서울·황해도곳에서 ‘장군거리’에서 작두를 타는 것인데 작두가 부각되어 ‘작두거리’로 명명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된다.

31) 현용준, 앞의 책(1980). 시왕맞이 부분의 제목만을 가져온 것이다. 이 시왕맞이의 연행은 안사인 십방이 한 것이다.

문돌아봄, 질침

(9) 채스본풀이

(10) 매어듬

<차사본풀이>는 두 번 구송된다. 앞과 뒤를 구분해서 말하면 시왕차사와 영계 차사이나 무기는 같다. 누가 구송하느냐 심방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차사본풀이>는 주요 신격인 강림차사의 청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왕맞이는 차사가 중요 신격으로 자리잡아 곳이 진행되는 반면 함흥 망목이곳은 여러 신격들이 등장하며, 그 중 한 신격으로 저승사자가 등장한다. 그런데 그 저승사자 보다는 퇴치 대상인 짐가체를 더 부각시켜서 액막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왕맞이에서도 액막음 과정에 <맹감(스만이)본풀이>가 구연된다. 이 <맹감본풀이>는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죽음을 면하는 내용으로, <짐가체굿>의 양상과도 닮아있다. 즉, <짐가체굿>의 전체적인 이야기 줄기는 <차사본풀이>와 유사하지만,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제의적 목적은 <맹감본풀이>와 유사하다.

<차사본풀이>는 실상 교술과 서사가 혼합된 형태로 연행된다.³²⁾ 차사본풀이의 세부 연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공선가선, ② 날과국섬김, ③ 집안연유담음, ④ 들어가는말미, ⑤ 혜심곡, ⑥ 본풀이, ⑦ 비념, ⑧ 주잔님김, ⑨ 산반아 분부 사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사본풀이>의 의미는 서사무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무가의 부분들이 제의 행위로 반복되기도 한다. 이른바 <차사본풀이>에서는 아진곳이라 하여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놓고 진행된다면, <차사본풀이> 무가에 등장하는 특정 문면인 나까시리도전침, 시왕질침 등이 선굿으로 진행된다.

나까시리도전침은 나까시리는 흰시루떡을 말하고, 사자상(使者床)에 올린 시루떡을 ‘나까시리’ ‘나까방석’이라고 말한다.³³⁾ 이 떡을 높이 허공으로 던져 받는 행위를 반복하며 사자에게 바치는 의미를 담는다. 이것의 근거가 <차사본풀이>에 등장한다. 염라왕과 강림이가 이승에 말젓장제칩 전새남을 받으러 왔을 때, 심방이 강림이를 ‘살려옵서’ 하지 않았다. 강림이가 심방을 결박하고, 풀어줌으로써 ‘나까시리도전침’이 생겼다고 무기는 전하고 있다.

32) 이에 반해 <짐가체굿>은 오로지 서사로만 연행된다.

33) 현용준, 앞의 책(1980), 287 쪽

즈부장제첩 먼 올레에 가고 보니 신의성방이 흥포관디 조심띠에 대시왕 언맞 이 오리정신청켈하던 모든 신주는 다 살려옵서 호고 강님이는 살려옵서 아너니 신의성방을 스문절박허연 제석공 신짜리(帝釋宮神席)에 프릿프릿 죽여가니, 똑똑하고 역력헌 연당 알 제석공 신소미는 오리정 데령상을 내어놓안 산이 체스도 체습네다. 우리 인간 강님체스도 저승을 가아네 염내왕광 그찌 신수퍼 사는 듯허우다. 강님체스도 살려옵서. 죽어가던 신의성방 프릿프릿 살아나고 그때에 내온 법으로 시왕당클 앞에 스젯상을 싱거 나갓방석 나갓도전을 치어 올리는 법입네다.³⁴⁾

시왕질침은 시왕의 길을 가기 위하여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행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리이다. 시왕의 길은 무척 많은 길이 있고, 그 길들을 잘 치우고 닦고, 다리를 놓아야 통할 수 있다고 관념한다. 그래서 칼로 우거진 풀들을 베고, 돌들을 치우고, 왕대들을 베고, 따비로 파고, 발로 고르고, 비로 쓸고, 이슬다리, 마른다리, 나비다리, 영신다리, 차사다리를 놓는다. 이런 길들이 <차사본풀이> 에서 등장한다. 다름 아니라 인간 강림이가 염라왕을 잡으러 저승에 갈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어떤 길을 통해 저승으로 통하는가의 문제였다. 시왕으로 통하는 수많은 길 ‘공거름질’ 중에 강림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 하나의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어서 잘 치우고 가야했다.

강님이야, 어주리비주리 눈부약 한탈남 가시덤불 돌바쿠 능거등 질을 허우튼 어 가당 보민 저승 질토래비 질나장 숙석(宿石)으로 드릴 노아 석자두타(三尺厚) 대갓넙이(五尺厚) 짚躑을 다끄당 시장끼에 톨령 해남석 앓앙 졸암실거베 너의 가진 전뎛귀에 떡 정심을 앓아내영 질토래비 눈앞의 노민 익은 음식이라 베고픈 짐에 삼식변을 그차 먹을겨여.³⁵⁾

바로 강림이는 저승으로 향하는 길의 방향과 방법을 아는 자가 되고, 그러한 능력으로 저승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곳에서도 관념하는 저승차시는 망자를 편안하게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는 존재이다. 이 문면이 좀더 생생하고 다양하게 분화된 제차가 시왕질침이다. 이렇게 <차사본풀이> 는 독립되어 단절된 무가가 아

34) 위의 책, 260쪽

35) 위의 책, 254쪽

나라 다른 소재차, 곳거리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제주도곳이 신화와 제의의 관련 양상이 밀접함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³⁶⁾

IV. 맺음말

본 연구는 제주도 <차사본풀이>와 함경도 무가 <짐가제굿>을 비교한 것이다. <차사본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본별 비교를 통한 구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굿>이 같은 유형의 이야기로 말해왔지만 실상 여러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차이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첫째가 <짐가제굿>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갈등 내지는 대결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의 이야기와 이승왕의 김치원이야기가 부가된 형태를 취한다. 둘째 <차사본풀이>의 차별성은 본풀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본풀이가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연한 결과는 아니라면, <차사본풀이>의 형성에 있어서 이런 제주도 특징이 발현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세번째는 <차사본풀이>가 서사무가의 구연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곳에서는 무가에 드러난 특정 부분들이 실제 연행에 행위로 보여져서 신화와 제의의 밀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가와 제의의 상관 관계가 유난히 밀접한 것도 제주도 무속의 특징이다. 결과론적으로 제주도 곳의 특징이 이 <차사본풀이> 하나에서도 압축되어 있다면, 반대로 <차사본풀이>라는 무가의 형성 과정에 제주도 곳의 특징들이 반영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과 같으면서도 다른 무가이다. 공유하는 서사가 있지만, 독자적인 서사가 존재한다. 또 무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중요하다. <차사본풀이>가 차사에 대한 청배 목적으로 부르는 무가라면, <짐가제

36) 신화와 제의가 상호 관련 있다는 학설은 유럽의 신화·제의학과 이래로 이제는 상식이 되어 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은 신화와 제의의 선후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관련이 필연적인가 우연적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분석하는 사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은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굿>은 그 무가의 명명 방식이나 무가의 내용을 통한 지향점이 액막음에 있는 무가이다. 그 의례적 실상이 소상하게 드러나지 않아 무리가 따르겠지만, <짐가제굿>은 무가 구연의 형태로 하나의 소재차, 즉 굿거리가 구성되지만, <차사본풀이>는 [들어가는 말미]—[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담임]—[차사본풀이]—[주잔넘김]—[산받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도굿의 체계적 성격이 <차사본풀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지역화한 결과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집, 2006, 43~71쪽.
- 김태곤, 『한국무가집 3』, 서울: 집문당, 1978.
- 김화경, 『차사본풀이』 구조의 분석」, 『인문연구』 14 호, 1993, 75~94 쪽
- 김현선,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 서울 길벗 1994, 133~174 쪽
-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제0 집 2005, 95~130쪽.
- 김형근,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문무병, 『1994년 동김녕 중당클 큰굿 자료집』, 제주: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문창현, 『風俗巫音(祝祀文)』, 제주: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 박중성, 「창세서사시 변이 전승과 시대적 변천」,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서울: 태학사, 1999.
- 서대석, 『서사무가연구-설화·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 안병국, 「저승설화연구」, 『우리문화회』 제16 집, 2003, 237~270 쪽
- 임석재·장주근,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3): 관북지방무가』, 서울 문화재관리국, 1965.
- 장주근,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열락, 2001.
- 장희철, 『차사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전경옥, 『함경도의 민속』,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제주: 민속원, 1991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집, 1997, 223~246쪽.
 황루시, 「임석재론. 『구비문학연구』 2집, 1995, 345~365 쪽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울: 서문당, 198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서울: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도서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용준, 『고려대 한국고전문학전집(29): 제주도무가』.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赤松智城·秋葉隆(저)/심우성(역), 『조선무속의 연구』. 서울: 동문선, 1991.

국문 요약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차사본풀이>와 <짐가제굿>이 같은 유형이라는 논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더 <차사본풀이>의 문면을 천착해보면 같지만 다른 면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차이가 단지 명칭과 장소라는 지엽적인 것만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의 본론에서는 먼저 <차사본풀이> 자료의 존재 양상과 이본 비교를 통해 공통 서사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과 <짐가제굿>을 비교한다. 비교를 통해 두 무가의 같으면서 다른 양상과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그 차이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 첫번째가 <짐가제굿>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갈등 내지는 대결구조가 있다는 점이다.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의 이야기와 이승왕인 김치원이야기가 부가된 형태를 취한다. 두번째 <차사본풀이>의 차별성은 본풀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본풀이가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우연한 결과는 아니라면, <차사본풀이>의 형성에 있어서 이런 제주도 특징이 발현된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세번째는 <차사본풀이>가 서사무가의 구연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곳에서는 무가에 드러난 특정 부분들이 실제 연행에 행위로 보여져서 신화와 제의의 밀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가와 제의의 상관관계가 유난히 밀접한 것도 제주도 무속의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곳의 특징이 이 <차사본풀이> 하나에서도 압축되어 있다면 반대로 <차사본풀이>라는 무가의 형성 과정에 제주도곳의 특징들이 반영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과 같으면서도 다른 무가이다. 공유하는 서사가 있지만, 독자적인 서사가 존재한다 또 무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중요하다. <차사본풀이>가 차사에 대한 칭배 목적으로 부르는 무가라면, <짐가제굿>은 그 무가의 명명 방식이나 무가의 내용을 통한 지향점이 액막음에 있는 무가이다. 제주도굿은 무가와 의례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통해 그 체계적 성격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지역화한 결과 <차사본풀이>는 <짐가제굿>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투고일 : 2008. 7. 8.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차사본풀이 (ChasaBonpuri; a shaman song of Jeju Island about the origin of the messenger who takes a dead soul to the underworld), 짐가제굿 (Jimgajegut; a shaman song of Hamgyeong-do about a wicked man Jimgajae), 시왕맞이 (Siwangmaji), 차사 (Chasa; the messenger who takes a dead soul to the underworld), 오구굿 (Ogugut)

K C I